

심민 군수, 공약사업 본격화

실천계획 보고회 등 갖고 이달 말까지 최종 마무리

심민 임실군수가 민선7기 군민들과 약속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며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군은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함께 할 4년의 더 확실한 임실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데 공약을 신속하게 점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달 18일부터 부서별로 검토의견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난 4일 1차 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23일 2차 보고회를 거쳐 최종검토회의를 가진 뒤 31일까지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농림축산, 문화관광, 교육복지, 지역개발 4개분야 69

개 사업이며, 법적근거,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실현가능성 등 쟁점사항 별로 실무부서 검토보고가 있었다.

또한, 사업별로 단계별 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정 및 재검토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현실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농협(비) 자체 수매 정부수매 값 보장, APC등 수급하는 한편 지난 4일 1차 보고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23일 2차 보고회를 거쳐 최종검토회의를 가진 뒤 31일까지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농림축산, 문화관광, 교육복지, 지역개발 4개분야 69



중심지 기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임실 이도 병목지점 개선 등이다.

교육복지분야는 이미용·목욕쿠폰·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애항 장학금 확대 지원,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지역개발분야는 도시 재생 및 중심지 기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 임실 이도 병목지점 개선 등이다.

심민 군수는 "어느 때보다도 지역발전과 복리향상을 위한 군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공직자 모두가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민선 7기에도 군민들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달 말까지 공약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황숙주 순창군수가 민선 6기 후반기에 이어 민선 7기 전반기에도 전북도시장군수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황숙주 순창군수 도시시장군수협의회장 선출

민선 7기 부회장에 김승수 전주시장 선출

황숙주 순창군수가 민선 6기 후반기에 이어 민선 7기 전반기에도 전북도시장군수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는 지난 5일 민선 7기 전북시장군수협의회 1차년도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황숙주 순창군수를 회장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김승수 전주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지자치단체장

과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에 당선된 유진섭 정읍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등 13명의 단체장들이 참석해 인사를 나눴다.

황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전라북도에는 지난 민선 6기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성공개회, 백제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캠프 유치 등 큰 성과도 많았지만 현대조선소 군산조선소 폐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 경제문제가 군산을

넘어 우리 전북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14개 자치단체와 전라북도와의 공고한 협력이어야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군수협의회가 선도적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 군수는 이어 "국가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시기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지방분권 논의 과정에서도 전라북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제24대 장명균 부군수가 지난 6일 이임식을 갖고 전북도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순창을 영원히 가슴에 담겠다”

제24대 순창군 장명균 부군수 이임식

"여러분과 함께 순창발전을 위해 땀 흘렸던 소중한 기억을 영원히 가슴에 간직하겠습니다" 순창군 제24대 장명균 부군수가 지난 6일 이임식을 갖고 전북도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 부군수는 지난해 1월 순창부군수로 취임해 약 1년 6개월간 순창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소통의 리더십과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직원들에게 사랑받는 부군수로, 의회와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군수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역대 가장 주목받는 부군수 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이임식은 3층 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 부군수는 "오늘 영광스런 자리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순창군 동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여러

분과 한 가족처럼 지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또 "도와 시군 사이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하천정비 사업비 증액, 밤재터널 안전성평가용역, 국지도 55호선 4차선 확장을 위해 뛰었던 일도 소중한 추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창지구 택지개발 착수, 장내유용미생물은행, 생산동 등 국비 확보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직원여러분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직원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냈다.

장 부군수는 "순창군을 떠나게 되지만 누구보다 순창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선 구체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업무와 관련된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 공부를 멈추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제14대 김동규 부시장 취임



제14대 남원부시장에 김동규 전북도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장이 지난 6일 취임하며, 김 부시장은 취임식을 고사하고 간부상견례, 만민이총 참배, 유관기관 방문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부시장은 "고향 남원에서 존경하는 이환주 시장님과 열정적인 남원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다"며, "미래로 도약하는 새희망 남원을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전략과 도시

경쟁력 재창조 전략을 충실히 수행, 성공하는 민선7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부시장(57)은 남원 출신으로, 1979년 공직에 입문해 2009년 사무관으로 승진, 균형발전담당,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행정지원관, 학력지원담당, 건설행정팀장 등을 거쳐 2017년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온화한 성품이지만 진중함과 위유내강형으로 겸비한 철저한 업무스타일과 강한 추진력으로 공무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민선 7기 제안공모 실시

임실군이 민선 7기 출범에 발맞추어 군민들과 함께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만들기를 위한 2018년도 제안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제안 공모는 민선 7기 정책방향에 맞는 신규 시책 및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생활불편 개선사항, 행정서비스 개선사항 등군정 전 분야에 대해서 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민선 7기 초기임을 감안 공약사항과 연계한 시책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군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채택을 우선하고 예산확보 등 사후조치도 신속히 마련해 나갈다는 방침이다.

응모 신청은 9일부터 부터 8월 7일까지 30일간 군 홈페이지 및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오는 11월까지 선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집행 가능성 등 실무심사와 최종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자는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비롯한 등급별로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민선 7기 출범에 즈음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가 크다"면서, "군민주도의 정책추진을 위해서 제안공모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령자 친화기업 '남원맛부각' 개소

남원시 주생면에서는 고령자 친화기업인 '남원맛부각'이 2017년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금 3억원을 받아 공장을 신축하고 지난 6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남원시장, 도의원, 등기관단체장과 지역 어르신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니어클럽의 (주)남원맛부각 사업단은 65세 이상 노인 18명이 주5일 동안 1일 3시간씩 일하며, 직접 만든 찹쌀죽을 사용해 김부각을 만들어 고소함이 탁월해 한번 맛본 고객들은 꾸준히 제품을 찾고 있어 매년 매출이 늘고 있다.

남원시니어클럽은 2016년 '크린시니어' 사업에 이어 두번째로 고령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남원시에 고령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어르신들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